

트러스톤다이나믹아시아증권투자신탁 [주식혼합-파생형] [주식혼합-파생형 펀드]

(운용기간 : 2018년 6월 28일 ~ 2018년 9월 27일)

○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 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주)

서울시 성동구 독성로1길 10(성수동 1가)
(전화 02-6308-0500, <http://www.trustonasset.com>)

펀드 운용경과 및 운용계획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트러스톤자산운용을 믿고 소중한 자산을 맡겨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투자원칙에 집중하여 장기적으로 고객 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꾸준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 드리며, 지난 3개월간의 운용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운용경과

2018년 6월 28일부터 2018년 9월 27일까지 펀드는 운용펀드 기준으로 -2.94%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시장 하락을 역이용하고자 주식 편입비를 상향 조정하였으나 시장은 우려요인이 심화되고 다각화되면서 예상 이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주식]

**중국 영향권 증시는 부진,
아세안 국가는 대체로 상승**

2분기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아시아 증시는 3분기 중국 영향권 증시와 비 중국권 간 명암이 갈렸습니다. 중국, 특히 선전 증시는 -10%에 가까운 분기 하락률을 보였고, 상해, 홍콩 증시 또한 부진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또한 보험 수준의 수익률을 보여, 하락 후 반등을 보인 기타 아세안 국가 증시 대비해서는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세안 국가 중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인 증시는 태국, 말레이시아였고, 일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도 증시는 한 때 중국 증시의 투자대안으로 여겨지기도 하였으나, 부실채권 정리, 환율하락 등의 이유로 9월 급락하였습니다.

**증시 간 수익률 격차는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

분기별 수익률은 국가별로 큰 격차를 보였지만 이는 펀더멘탈 요인보다는 각국 증시를 둘러싼 수급 요인이 상이하기 때문으로 이해합니다. 가장 양호한 수익률을 보인 태국, 말레이시아 증시는 각각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의 증시참여도가 높고,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낮습니다. 인도도 기관투자자들의 영향력이 높은 편입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 아시아 모든 국가들은 중국의 거대한 소비 시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시 간의 수익률 차별화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봅니다.

**지난 수년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홍콩 IT업종,
중국 경기민감소비재 업종이
가장 부진**

업종별로는 유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경기와 무관한 바이오 업종은 우리나라 및 일본, 인도에서 수익률이 좋았는데, 중국에서는 생물학적 동등성 검사라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서 바이오 업종마저 수익률이 부진하였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에서 가장 부진했던 곳은 홍콩의 IT업종, 중국의 경기민감소비재 업종입니다. 지난 수년간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분야였기에 많은 펀더멘탈 투자자들을 괴롭혔던 요인이기도 합니다.

**점진적인 주식 편입비
상향 조정은
향후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

펀드는 지난 분기 시장 하락을 역이용하고자 주식 편입비를 상향 조정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상반기 주식 시장은 이미 많은 우려 요인들을 반영하여 하락해 있었고, 각국 증시 중 가장 많이 하락한 중국 종목 위주로 편입비를 상향 조정하였으나, 시장참여자



들은 달러 강세에서 미중 무역분쟁 쪽으로 초점을 변경하면서 중국 시장을 지속적으로 매도하였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아시아 기업 비중 확대 전략은 유효하였으나 전체 손실 폭을 만회하기에는 부족하였고,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 숏 종목이 급등하는 등 예기치 못한 이벤트들도 부진한 성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주식 편입비 확대 전략을 통한
펀드 수익률의
긍정적 기여 기대**

동기간 중국과 대만을 제외한 국가에서 대부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주식 편입비 확대 전략은 어느 정도 유효했던 셈입니다.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 증시에 좀 더 집중했어야 한다는 후회가 남지만 기업 본연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낙폭 과대 우량주에 좀 더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여전히 유효하며, 결국 펀드 수익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권]

지난 분기는 미중 무역전쟁 이슈와 터키 등 이머징 우려가 안전자산 선호로 이어졌으나 경제지표 호조와 유가 상승,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약세 전환되어 채권 금리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우려가 지속되었으나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점진적 금리 인상
전망 등으로
금리 상승**

7월 채권 시장은 월 중반까지 선진국 지역의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보복관세 언급 및 중국 상무부의 보복 발언 등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었고 미국의 대 EU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 등 무역분쟁 여파가 확산될 우려가 커지며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월 중반 이후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 유지 발언 및 미국과 EU간 긍정적 무역협상 합의안 도출, 일본은행(BOJ) 통화정책 정상화 경계감,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기대감 등으로 선진국 금리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 지속,
터키 등 이머징 우려
Vs.
미국-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상 타결 등으로
금리 혼조세**

8월 채권 시장은 월 중반까지 미국의 대중 관세율 인상과 중국의 대미 보복 관세율 상향으로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증가하였고, 이탈리아 예산안 및 브렉시트 협상 결렬 우려 등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월 중반에 미국인 브론슨 목사의 석방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터키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달러화 대비 터키 리라화 환율이 7.0을 넘는 등 패닉 현상을 보인 점도 안전자산 선호를 심화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월 후반으로 가면서 미국과 멕시코간 NAFTA 개정안이 타결된 점과 추가적으로 미국과 캐나다간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점이 중반까지의 강세를 일부 되돌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경제지표 호조와
유가상승으로
금리가 상승하였으나
이탈리아 이슈로
소폭 반락**

9월 채권 시장은 월 중반까지 미 공급관리자협회(ISM)지수, 고용 및 임금 등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약세를 지속했습니다.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부활에 따른 원유 공급 우려로 인한 유가 상승도 금리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월 후반으로 가면서 유럽중앙은행(ECB) 드라기 총재의 물가 상승과 관련한 낙관적인 언급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해석되며 추가 약세를 이끌었으나, 이탈리아 정부가 내년도 재정적자를 GDP 대비 2.4%로 확대한다는 소식이 시장에 불안을 초래하며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이끌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25%로 25bp 인상하였습니다.

Bloomberg Barclays Asian-Pacific Aggregate Index 기준 2018년 6월 27일 대비 0.40pt 하락한 149.35로 마감하였습니다. (Bloomberg Barclays Asian-Pacific Aggregate Index JPY 기준 1.22pt 하락한 139.32 마감, Bloomberg Barclays Asian-Pacific Aggregate Index ex JPY 기준 7.06pt 상승한 294.42 마감)



분기 운용은 안정성을 고려한 채권투자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비교적 짧은 만기의 원화 표시 통안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금리와 환율 변동성에도 안정감 있는 수익 추구를 지속하였습니다.

2. 운용계획

[주식]

**장기적 관점에서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을
고민하는 것이 보다 중요**

중국에 대한 비관론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역분쟁을 위시한 미중 간 다툼을 미국의 승리로 결론짓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승리를 쉽사리 점치기 보다는 두 국가의 패권 다툼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며, 이는 국가 운영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것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 보는 것이 보다 유효한 국면이라고 판단합니다.

**교육, 4차 산업,
바이오 업종에 집중**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국이 이제 무시당할 만한 국가가 아니라는 중국 국민들의 자존감은 서서히 높아져 왔습니다. 또한 이는 정부가 조장한 것이 아니라도 자연스럽게 발생, 점증해 왔음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분쟁 역사와 중국 국민들의 반응을 보아도 추론 가능한 부분입니다. 최근 발발하고 있는 미중 간의 분쟁은 신정권의 갑작스러운 정책 때문일 수도 있으나, 자존감의 발현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가 미국과의 분쟁에서 승패 여부와 상관없이 중국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삶의 질이 개선되어야 하고, 허드렛 일은 누군가 대체해 주어야 하고, 질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를 업종으로 해석해 보면 교육, 4차 산업, 바이오라고 판단합니다.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한
중국 내수 기업이
매수 대상**

최근 발표된 중국의 소득세제 개편은 위와 같은 의견을 일부 뒷받침합니다. 앞서 언급 드린 세 영역은 이번 세제 개편에서 소득 공제 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시장 일부에서는 중국이 경제 난국 타개를 위해 인프라 관련 재정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지만, 중국은 이미 부채가 많고,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이 아니기에 혹시 재정정책이 발표되더라도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이미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이미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한 내수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해당 기업들 또한 최근 여러가지 이유로 큰 폭 하락하였기에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의 해결
실마리를 제공하게 될
중국 내수 시장**

중국의 가장 큰 강점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내수 시장입니다. 해당 시장이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을 미국 기업들이 향유하지 못한다면 이는 기회 손실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영역은 자연스럽게 내수 기업들이 채워나가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의 이 거대한 내수 시장은 향후 혹시나 있을 미중 무역분쟁의 해결 실마리를 제공하는 핵심일 것이라고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펀드는 기본적으로 낮은 주식 편입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는 수년에 한번씩 찾아오는 우량주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의 운용 방침은 중기적으로 분명 투자자들의 수익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수요가 불확실한 시기에
여전히 빅데이터 관련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확신**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 주가 부진의 원인이기에,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최근 서버향 투자가 예전 같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페이스북 관련 사태, 중국의 미국 서버업체 스파이칩 삽입 의혹, 작년의 기고효과 등이 있습니다. 수요가 둔화되고 있음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많은 정보들이 데이터로 축적될 것이고, 클라우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불거진 모든 상품들의 수요위축과 상대 비교시 우월해 보입니다. 밸류에이션 또한 대부분 높은 멀티플을 받던 업체들은 현재 아주 매력적인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해 있습니다. 다만, 일본, 한국, 중국을 막론하고 각 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지닌 견고한 업체의 경우 저가 매수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채권]

**미국은 소비를 중심으로
건조한 성장세 지속,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며
경기 둔화 우려**

펀더멘탈 측면에서 국내경제는 수출과 생산은 양호한 흐름 이어갔지만 고용과 내수, 설비투자는 부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비를 중심으로 건조한 성장세 지속했지만 주택 등 일부 모멘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존은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다소 하회했지만 유로화 약세 및 고용 개선에 따라 경기 개선 전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탈리아 재정적자 확대 및 ‘노딜’(No deal : 영국이 아무런 협상 없이 EU를 떠나는 것) 브렉시트 우려 등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표 약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본은 지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 금리 인상
경계감 상승**

미국은 예상대로 9월 금리인상을 결정하였고 12월 인상 기대도 높은 상황입니다. 유럽은 기존과 동일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은행(BOJ)은 아베 총리의 3연임 이후 정책 변화가 없으나 스텔스 테이퍼링(중앙은행이 시장에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고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내금리차 확대와 부동산발 금융안정 논리로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 금리 인상 경계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통화정책 정상화와
경기 판단 변화에 따라
변동성 장세 지속 예상**

종합적으로 보면, 펀더멘탈 상 미국은 건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 국내 지표도 소비심리가 상승 반전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모습이 관찰되지만,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유로 지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 측면에서는 선진국 중에 미국만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지만, 다른 주요국도 결국에는 완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으며 이는 국내도 마찬가지로 점차 금리 인상 경계감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되며 금리 상승 우려가 있는 상황이나 경기 고점 논란과 향후 경기 둔화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유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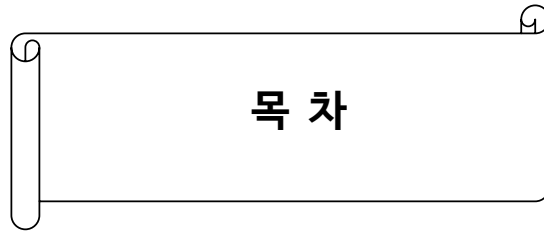
채권운용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이자수익 제고를 위해 달러 표시 아시아 우량 크레딧 채권 편입과 환변동이 안정적인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의 현지 통화 채권 편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장기적으로 기업가치가 향상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 내재가치 이하에서 투자”한다는 운용철학을 견지합니다. 저성장기에 따라 자본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수익률을 제고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장환경을 충분히 인지하고 다양한 전략과 대응을 통하여 펀드의 안정적인 수익률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성찰을 통해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고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며, 다음 분기 보고서에서도 좋은 수익률로 찾아 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과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님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도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운용부문 CIO 황성택
CIO 이윤표
주식운용AR본부 AR팀장 이무광
채권운용본부 임직원 拜上



1. 펀드의 개요

2. 수익률 현황

3. 자산현황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5. 비용현황

6. 투자자산매매내역

7.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8. 공지사항

〈참고 - 펀드용어정리〉

1. 펀드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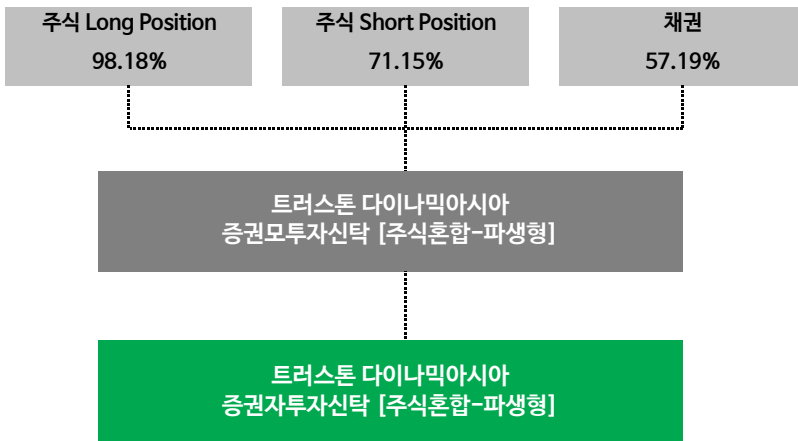
■ 기본정보

적용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펀드 명칭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투자위험등급 |
|------------------------------|--|-------------|--------------------|
| 트러스트다이내믹아시아증권투자신탁 [주식혼합-파생형] | | AR493 | 2등급 (높은 위험) |
| A | | AR495 | |
| Ae | | AR497 | |
| C1 | | AR498 | |
| C2 | | AR499 | |
| Ce | | AR502 | |
| S | | AR506 | |
| Cp | | BI949 | |
| Cp-E | | BI950 | |
| S-P | | BI951 | |
| 펀드의 종류 | 주식혼합-파생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 최초설정일 | |
| 운용기간 | 2018.06.28 ~ 2018.09.27 | 존속기간 | 별도의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이 없음 |
| 자산운용회사 | 트러스트자산운용(주) | 펀드재산보관회사 | HSBC Bank |
| 판매회사 ^{주)} | www.trustonasset.com | 일반사무관리회사 | 하나펀드서비스 |
| 상품의 특징 | 투자신탁재산의 50%이상을 주식 등에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95%이하를 국내채권에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 - 시장상황에 따른 주식시장 노출도 조절과 개별주식 통신평형으로 코스피 대비 변동성 축소 - 저평가된 채권을 발굴하여 상대가치 투자를 하고 금리 전망에 근거한 듀레이션 조절을 통해 자본이익 달성 추구 | | |

주) 판매회사 : 자세한 사항은 트러스트자산운용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펀드구성



주) 위의 결과는 해당 자펀드의 실제 자산보유 내역을 투자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모펀드의 자산구성 내역을 해당 자펀드가 각 모펀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익증권 기준으로 작성한 결과와 비교하여 상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산현황

(단위: 백만원, 백만좌, %)

| 펀드명칭 | 항목 | 전기말 | 당기말 | 증감률 |
|-------------------------------------|--------------------------------|----------|--------|--------|
| 트러스톤다이나믹아시아 증권투자신탁 [주식혼합-파생형] | 자산 총액 (A) | 5,883 | 5,387 | -8.43 |
| | 부채 총액 (B) | 84 | 8 | -90.83 |
| | 순자산총액 (C=A-B) | 5,799 | 5,379 | -7.24 |
| |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 5,772 | 5,516 | -4.43 |
| | 기준가격 ^주 (E=C/D×1000) | 1,004.68 | 975.14 | -2.94 |
| 종류(Class)별 기준가격 현황 | | | | |
| A | 기준가격 | 983.08 | 950.67 | -3.30 |
| Ae | 기준가격 | 988.27 | 956.54 | -3.21 |
| C1 | 기준가격 | 974.96 | 941.39 | -3.44 |
| C2 | 기준가격 | 1,026.50 | 991.65 | -3.40 |
| Ce | 기준가격 | 986.06 | 954.04 | -3.25 |
| S | 기준가격 | 990.20 | 958.54 | -3.20 |
| Cp | 기준가격 | 982.98 | 950.56 | -3.30 |
| Cp-E | 기준가격 | 988.15 | 956.40 | -3.21 |
| S-P | 기준가격 | 989.27 | 957.69 | -3.19 |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수익률 현황

■ 기간 수익률

(단위: %)

| 구분 | 최근 3개월 | 최근 6개월 | 최근 9개월 | 최근 12개월 |
|---------------------------------|--------|--------|--------|---------|
| 트러스톤다이나믹아시아증권 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 -2.94 | -1.63 | 0.61 | 0.14 |
| 종류(Class)별 현황 | | | | |
| A | -3.30 | -2.35 | -0.48 | -1.30 |
| Ae | -3.21 | -2.18 | -0.22 | -0.95 |
| C1~C2(CDSC 통합 수익률) | -3.40 | -2.56 | -0.08 | -0.55 |
| Ce | -3.25 | -2.25 | -0.33 | -1.10 |
| S | -3.20 | -2.15 | -0.16 | -0.85 |
| Cp | -3.30 | -2.35 | -0.48 | -1.31 |
| Cp-E | -3.21 | -2.18 | -0.22 | -0.96 |
| S-P | -3.19 | -2.14 | -0.17 | -0.88 |

주) 비교지수(벤치마크) :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의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없어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의 수익률은 과거의 운용실적으로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당 펀드는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으로 종류별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손익합계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투자 | 장내 | 장외 | | 실물자산 | 기타 | | | |
| 전기 | 39 | 18 | 0 | 0 | 0 | 48 | 0 | 0 | 6 | 3 | -42 | 71 |
| 당기 | 24 | 15 | 0 | 0 | 0 | -73 | 0 | 0 | -74 | 3 | -63 | -16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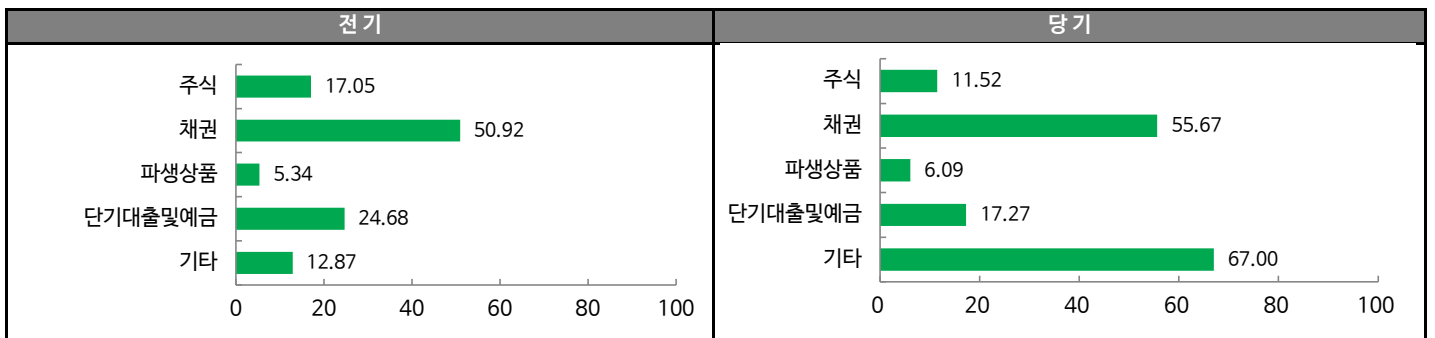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

| 통화별 구분 | 증권 | | | 파생상품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총액 | |
|------------------|------------------|-----------------|------------------|---------------|------------------|-------------------|----------------|------------------|-------|
| | 주식 | | 채권 | 장내 | 장외 | | | | |
| | Long | Short | | | Long | | | | Short |
| CNH (161.76) | 0 (0.00) | 0 (0.00) | 0 (0.00) | 0 (0.00) | 175 (3.24) | 0 (0.00) | 0 (0.00) | 175 (3.24) | |
| CNY (161.81) | 0 (0.00) | 0 (0.00) | 0 (0.00) | 0 (0.00) | 238 (4.43) | 0 (0.00) | 0 (0.00) | 238 (4.43) | |
| HKD (142.38) | 0 (0.00) | 0 (0.00) | 0 (0.00) | 0 (0.00) | 955 (17.72) | -738 (14.55) | 0 (0.00) | 171 (3.18) | |
| IDR (0.07) | 0 (0.00) | 0 (0.00) | 0 (0.00) | 0 (0.00) | 137 (2.53) | -61 (-1.14) | 0 (0.00) | 75 (1.40) | |
| JPY (9.88) | 0 (0.00) | 0 (0.00) | 0 (0.00) | 0 (0.00) | 1,147 (21.29) | -1069 (-19.84) | 0 (0.00) | 78 (1.45) | |
| MYR (268.56) | 0 (0.00) | 0 (0.00) | 0 (0.00) | 0 (0.00) | 206 (3.83) | -222 (-4.13) | 0 (0.00) | -16 (-0.30) | |
| PHP (20.50) | 0 (0.00) | 0 (0.00) | 0 (0.00) | 0 (0.00) | 117 (2.18) | 0 (0.00) | 0 (0.00) | 117 (2.18) | |
| SGD (814.81) | 0 (0.00) | 0 (0.00) | 0 (0.00) | 0 (0.00) | 171 (3.18) | -100 (-1.86) | 0 (0.00) | 71 (1.32) | |
| THB (34.30) | 0 (0.00) | 0 (0.00) | 0 (0.00) | 0 (0.00) | 149 (2.78) | -220 (-4.09) | 0 (0.00) | -71 (-1.32) | |
| TWD (36.40) | 0 (0.00) | 0 (0.00) | 0 (0.00) | 0 (0.00) | 301 (5.58) | -506 (-9.40) | 0 (0.00) | 206 (-3.82) | |
| USD (1112.50) | 0 (0.00) | 0 (0.00) | 0 (0.00) | 0 (0.00) | 506 (9.39) | -235 (-4.37) | 0 (0.00) | 270 (5.08) | |
| KRW (1.00) | 1,046 (19.42) | -497 (-9.22) | 2,999 (55.67) | 328 (6.09) | 0 (0.00) | -35 (-0.66) | 930 (17.27) | 4,483 (83.22) | |
| 합계 | 1,046 | -497 | 2,999 | 328 | 4,102 | 3,234 | 930 | 100 | |

* () : 구성비중



주) 위의 결과는 해당 자펀드의 실제 자산보유 내역을 투자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모펀드의 자산구성 내역을 해당 자펀드가 각 모펀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안분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익증권 기준으로 작성한 결과와 비교하여 상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순포지션 비율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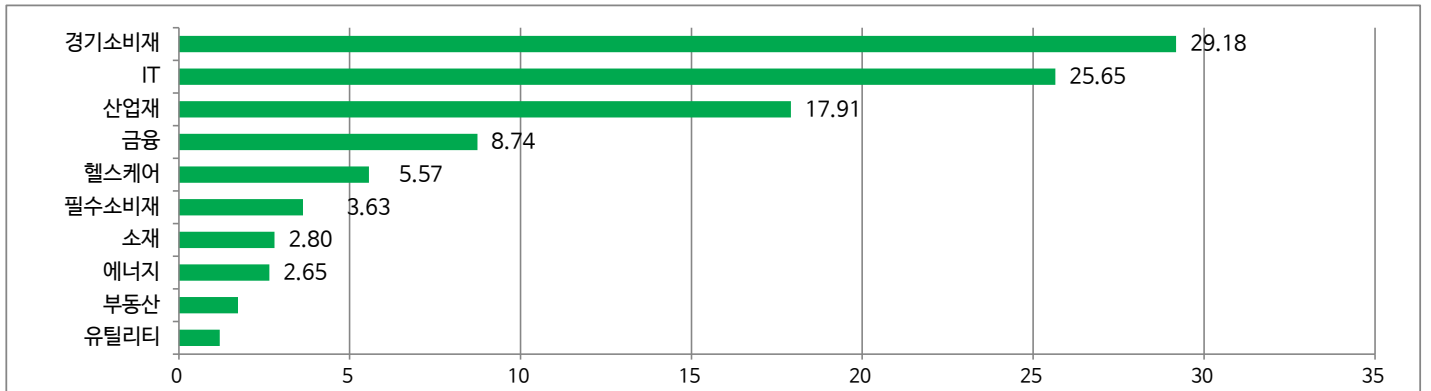
| 구분 | 주식 | 채권 | 파생상품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
|----|-------|-------|-------|------|--------------|-------|-------|
| | | | 장내 | 장외 | | | |
| 금액 | Long | 1,046 | 2,999 | 328 | 4,102 | 930 | -287 |
| | Short | 497 | - | - | 3,234 | - | - |
| | 순포지션 | 549 | 2,999 | 328 | 868 | 930 | -287 |
| 비중 | Long | 11.47 | 32.89 | 3.60 | 44.99 | 10.20 | -3.15 |
| | Short | 13.32 | - | - | 86.68 | - | - |
| | 순포지션 | 10.20 | 55.67 | 6.09 | 16.12 | 17.27 | -5.34 |

주)트러스트다이내믹아시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기준

■ 업종별 투자비중: 매수(Long)포지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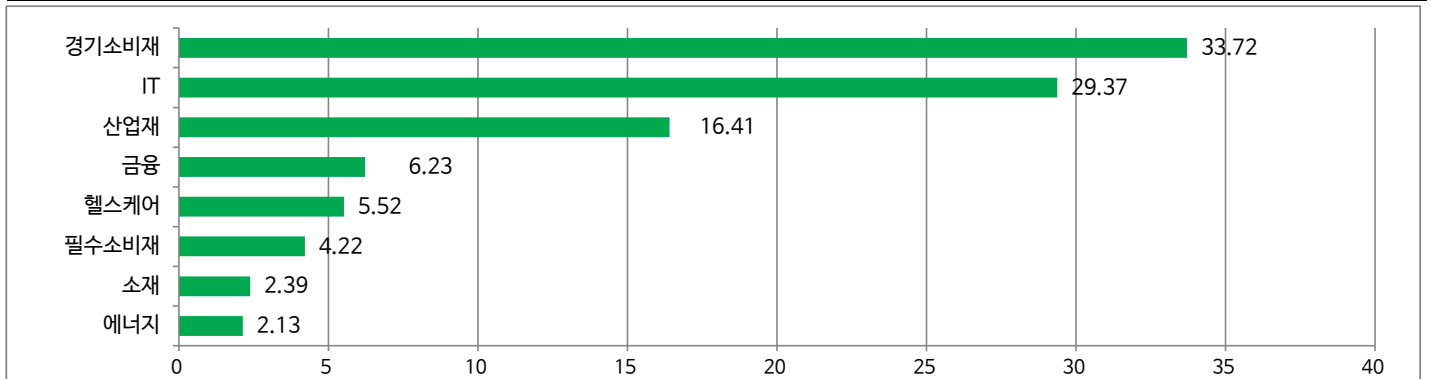
| 순위 | 업종명 | 비중 | 순위 | 업종명 | 비중 |
|----|-------|-------|----|-------|------|
| 1 | 경기소비재 | 29.18 | 6 | 필수소비재 | 3.63 |
| 2 | IT | 25.65 | 7 | 소재 | 2.80 |
| 3 | 산업재 | 17.91 | 8 | 에너지 | 2.65 |
| 4 | 금융 | 8.74 | 9 | 부동산 | 1.73 |
| 5 | 헬스케어 | 5.57 | 10 | 유틸리티 | 1.20 |



■ 업종별 투자비중: 매도(Short)포지션

(단위: %)

| 순위 | 업종명 | 비중 | 순위 | 업종명 | 비중 |
|----|-------|-------|----|-------|------|
| 1 | 경기소비재 | 33.72 | 6 | 필수소비재 | 4.22 |
| 2 | IT | 29.37 | 7 | 소재 | 2.39 |
| 3 | 산업재 | 16.41 | 8 | 에너지 | 2.13 |
| 4 | 금융 | 6.23 | 9 | | |
| 5 | 헬스케어 | 5.52 | 10 | | |



■ 국가별 투자비중(발행국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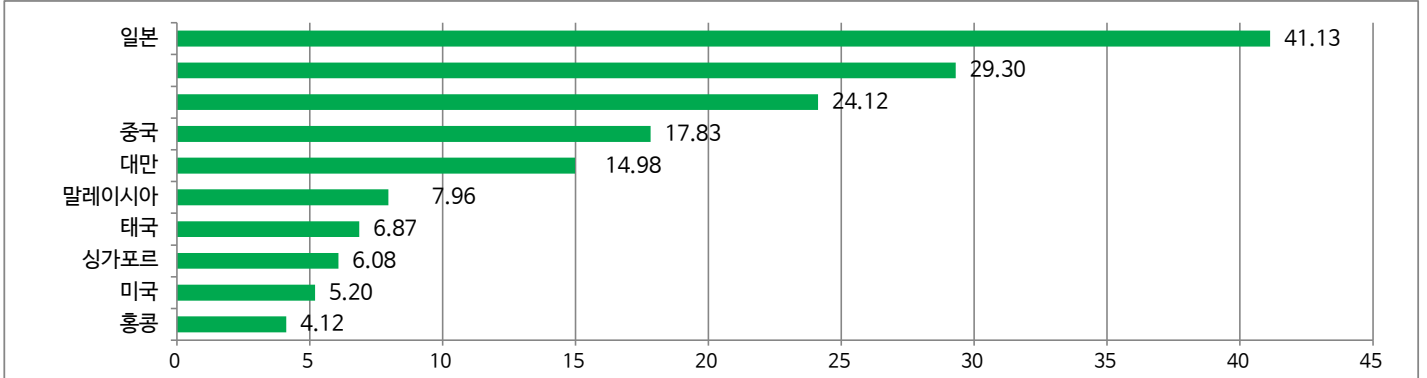
▶ 주식 (Gross exposure 상위 10개국)

(단위 : %)

| 순위 | 국가명 | 비중 | | 순위 | 국가명 | 비중 | |
|----|-------|-------|-------|----|-------|-------|-------|
| | | Gross | Net | | | Gross | Net |
| 1 | 일본 | 41.13 | 1.45 | 6 | 말레이시아 | 7.96 | -0.30 |
| 2 | 대한민국 | 29.30 | 9.54 | 7 | 태국 | 6.87 | -1.32 |
| 3 | 케이먼군도 | 24.12 | 7.08 | 8 | 싱가포르 | 6.08 | 2.33 |
| 4 | 중국 | 17.83 | 5.72 | 9 | 미국 | 5.20 | 3.32 |
| 5 | 대만 | 14.98 | -3.82 | 10 | 홍콩 | 4.12 | -2.52 |

주1) Net Exposure(순편입비중): long(매수 평가비중)에서 short(차입매도비중과 선물매도비중)을 차감한 것으로 시장에 대한 노출도를 의미함

주2) Gross Exposure(총편입비중): long(매수 평가비중)에서 short(차입매도비중과 선물매도비중)의 절대값을 합산한 것으로 총 편입비를 의미함



▶ 채권

(단위 : %)

| 순위 | 국가명 | 비중 | | 순위 | 국가명 | 비중 | |
|----|------|-------|-----|----|-----|-------|-----|
| | | Gross | Net | | | Gross | Net |
| 1 | 대한민국 | 55.67 | - | 6 | | | |
| 2 | | | | 7 | | | |
| 3 | | | | 8 | | | |
| 4 | | | | 9 | | | |
| 5 | | | | 10 | | | |

■ 환헤지에 관한 사항

| | |
|---------------|---|
| 환헤지란? | 환헤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헤지 비율은 기준일 현재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자산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전략을 통해 환율 변동이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미국 달러화(이하, "달러") 등 외국 통화 대비 원화 환산가치의 하락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모두투자신탁의 국가별 외국 통화 표시 자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헤지가 불가능한 통화이거나 보유 비중이 낮은 통화 자산인 경우 환헤지 전략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외국 국가 통화 간의 환율변동위험에는 노출됩니다. 환율이 하락(외화대비 원화 가치 상승)할 경우 외화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차익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됩니다. 반면, 환율이 상승(원화대비 해당 외화 가치 상승)하는 경우 외화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익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손실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됩니다. 하지만, 자산가치의 변동, 환헤지 시행 시기의 시차, 헤지비용 등의 이유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각각의 환차손과 환차익이 완벽하게 상쇄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환율변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자산가치 변동과 환율변동이 해당 펀드의 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 투자설명서 상의 목표 환헤지 비율 | 기준일(18.9.27) 현재 환헤지 비율 | 환헤지 비용 (17.12.28 ~ 18.9.27) | 환헤지로 인한 손익 (17.12.28 ~ 18.9.27) |
|-----------------------|---------------------------|--------------------------------|------------------------------------|
| 달러화 자산에 대하여 70% 이상 | - | - | - |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

| 순위 | 구분 | 종목명 | 비중 | 순위 | 구분 | 종목명 | 비중 |
|----|----|--------------------|-------|----|--------|---------|------|
| 1 | 채권 | 통안증권0158-1906-0200 | 55.67 | 6 | 주식 | DGB금융지주 | 1.51 |
| 2 | 단기 | 은대(HSBC은행) | 17.27 | 7 | 차입주식매도 | 신한지주 | 1.49 |
| 3 | 단기 | 증거금(NH투자증권) | 6.09 | 8 | 차입주식 | 신한지주 | 1.46 |
| 4 | 주식 | 삼성전자우 | 3.92 | 9 | 차입주식매도 | 삼성전기 | 1.32 |
| 5 | 주식 | 대림산업 | 1.66 | 10 | 주식 | CJ ENM | 1.16 |

※보다 상세한 투자대상자산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펀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주식

(단위 : 주, 백만원, %)

| 종목명 | 보유수량 | 평가금액 | 비중 | 발행국가 | 통화 | 업종 | 비고 |
|-------|-------|------|------|------|-----|-----|----|
| 삼성전자우 | 5,500 | 211 | 3.92 | 대한민국 | KRW | IT | |
| 대림산업 | 1,080 | 90 | 1.66 | 대한민국 | KRW | 산업재 | |

주)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초과 종목

▶ 채권

(단위 : 백만원, %)

| 종목명 | 액면가액 | 평가액 | 발행국가 | 통화 | 발행일 | 상환일 | 보증기관 | 신용등급 | 비중 |
|--------------------|-------|-------|------|-----|------------|------------|------|------|-------|
| 통안증권0158-1906-0200 | 3,000 | 2,999 | 대한민국 | KRW | 2017-06-02 | 2019-06-02 | | N/A | 55.67 |

주)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 주, 백만원, %)

| 종류 | 금융기관 | 취득일자 | 금액 | 금리 | 만기일 | 발행국가 | 통화 |
|-----|--------|------------|-----|------|-----|------|-----|
| 예금 | HSBC은행 | 2016-12-28 | 929 | 1.15 | | 대한민국 | KRW |
| 증거금 | NH투자증권 | | 328 | 0.00 | | 대한민국 | KRW |

주)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인력

■ 투자운용인력 (펀드매니저)

(단위 : 개, 억원)

| 성명 | 직위 | 출생 년도 | 운용 중인 펀드 현황 | |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 | 협회등록번호 |
|-----|----|----------|-------------|--------|-------------------------|-------|------------|
| | | | 펀드개수 | 운용규모 | 펀드개수 | 운용규모 | |
| 이무광 | 차장 | 1980년 | 22 | 4,501 | 9 | 1,445 | 2109001374 |
| 진재식 | 부장 | 1979년 | 26 | 15,028 | 1 | 469 | 2101011621 |
| 문성호 | 부장 | 1977년 | 23 | 4,951 | - | - | 2109001217 |

주)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운용전문인력이며, '책임 운용전문인력'이란 운용전문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펀드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 운용자산 | 구분 | 기간 | 운용전문인력 |
|------|-------|-----------------|--------|
| 주식 | 책임운용역 | 2016.12.28 - 현재 | 이무광 |

주) 2018.9월 기준일 현재 기준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임

5. 비용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전기 | | 당기 | | |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트러스톤다이나믹아시아 증권투자신탁 [주식혼합-파생형] | 자산운용사 | 0 | 0.00 | 0 | 0.00 | |
| | 판매회사 | 0 | 0.00 | 0 | 0.00 | |
| |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 0 | 0.00 | 0 | 0.00 | |
| | 일반사무관리회사 | 0 | 0.00 | 0 | 0.00 | |
| | 보수합계 | 0 | 0.00 | 0 | 0.00 | |
| | 기타비용** | 27 | 0.51 | 23 | 0.42 | |
| | 매매. 중개 수수료 | 단순매매.중개수수료 | 5 | 0.10 | 5 | 0.10 |
| | |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 0 | 0.01 | 1 | 0.01 |
| | | 합계 | 6 | 0.10 | 6 | 0.11 |
| | | 증권거래세 | 1 | 0.01 | 1 | 0.02 |
| A | 자산운용사 | 4 | 0.18 | 4 | 0.18 | |
| | 판매회사 | 4 | 0.18 | 4 | 0.18 | |
| |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 0 | 0.01 | 0 | 0.01 | |
| | 일반사무관리회사 | 0 | 0.00 | 0 | 0.00 | |
| | 보수합계 | 9 | 0.37 | 9 | 0.37 | |
| | 기타비용** | 13 | 0.51 | 10 | 0.43 | |
| | 매매. 중개 수수료 | 단순매매.중개수수료 | 2 | 0.10 | 2 | 0.10 |
| | |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 0 | 0.01 | 0 | 0.01 |
| | | 합계 | 3 | 0.10 | 3 | 0.11 |
| | | 증권거래세 | 0 | 0.01 | 1 | 0.02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전기 | | 당기 | | |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Ae | 자산운용사 | 0 | 0.18 | 0 | 0.18 | |
| | 판매회사 | 0 | 0.09 | 0 | 0.09 | |
| |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 0 | 0.01 | 0 | 0.01 | |
| | 일반사무관리회사 | 0 | 0.00 | 0 | 0.00 | |
| | 보수합계 | 0 | 0.28 | 0 | 0.28 | |
| | 기타비용** | 0 | 0.51 | 0 | 0.44 | |
| | 매매, 중개 수수료 | 단순매매.중개수수료 | 0 | 0.10 | 0 | 0.10 |
| | |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 0 | 0.01 | 0 | 0.01 |
| | | 합계 | 0 | 0.10 | 0 | 0.11 |
| | | 증권거래세 | 0 | 0.01 | 0 | 0.02 |
| C1 | 자산운용사 | 0 | 0.18 | 1 | 0.18 | |
| | 판매회사 | 1 | 0.33 | 1 | 0.33 | |
| |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 0 | 0.01 | 0 | 0.01 | |
| | 일반사무관리회사 | 0 | 0.00 | 0 | 0.00 | |
| | 보수합계 | 1 | 0.52 | 2 | 0.52 | |
| | 기타비용** | 1 | 0.49 | 2 | 0.40 | |
| | 매매, 중개 수수료 | 단순매매.중개수수료 | 0 | 0.11 | 0 | 0.10 |
| | |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 0 | 0.01 | 0 | 0.01 |
| | | 합계 | 0 | 0.11 | 0 | 0.11 |
| | | 증권거래세 | 0 | 0.01 | 0 | 0.02 |
| C2 | 자산운용사 | 4 | 0.18 | 4 | 0.18 | |
| | 판매회사 | 7 | 0.28 | 7 | 0.28 | |
| |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 0 | 0.01 | | | |
| | 일반사무관리회사 | 0 | 0.00 | 0 | 0.00 | |
| | 보수합계 | 11 | 0.47 | 11 | 0.47 | |
| | 기타비용** | 12 | 0.51 | 10 | 0.43 | |
| | 매매, 중개 수수료 | 단순매매.중개수수료 | 2 | 0.09 | 2 | 0.10 |
| | |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 0 | 0.01 | 0 | 0.01 |
| | | 합계 | 2 | 0.10 | 3 | 0.11 |
| | | 증권거래세 | 0 | 0.01 | 1 | 0.02 |
| Ce | 자산운용사 | 0 | 0.18 | 0 | 0.18 | |
| | 판매회사 | 0 | 0.13 | 0 | 0.13 | |
| |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 0 | 0.01 | 0 | 0.01 | |
| | 일반사무관리회사 | 0 | 0.00 | 0 | 0.00 | |
| | 보수합계 | 1 | 0.32 | 1 | 0.32 | |
| | 기타비용** | 1 | 0.50 | 1 | 0.42 | |
| | 매매, 중개 수수료 | 단순매매.중개수수료 | 0 | 0.10 | 0 | 0.10 |
| | |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 0 | 0.01 | 0 | 0.01 |
| | | 합계 | 0 | 0.11 | 0 | 0.11 |
| | | 증권거래세 | 0 | 0.01 | 0 | 0.02 |
| S | 자산운용사 | 0 | 0.18 | 0 | 0.18 | |
| | 판매회사 | 0 | 0.08 | 0 | 0.08 | |
| |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 0 | 0.01 | 0 | 0.01 | |
| | 일반사무관리회사 | 0 | 0.00 | 0 | 0.00 | |
| | 보수합계 | 0 | 0.26 | 0 | 0.26 | |
| | 기타비용** | 0 | 0.51 | 0 | 0.43 | |
| | 매매, 중개 수수료 | 단순매매.중개수수료 | 0 | 0.09 | 0 | 0.10 |
| | |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 0 | 0.01 | 0 | 0.01 |
| | | 합계 | 0 | 0.10 | 0 | 0.11 |
| | | 증권거래세 | 0 | 0.01 | 0 | 0.02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전기 | | 당기 | | |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Cp | 자산운용사 | 0 | 0.18 | 0 | 0.18 | |
| | 판매회사 | 0 | 0.18 | 0 | 0.18 | |
| |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 0 | 0.01 | 0 | 0.01 | |
| | 일반사무관리회사 | 0 | 0.00 | 0 | 0.00 | |
| | 보수합계 | 0 | 0.37 | 0 | 0.37 | |
| | 기타비용** | 0 | 0.51 | 0 | 0.43 | |
| | 매매, 중개 수수료 | 단순매매·중개수수료 | 0 | 0.09 | 0 | 0.10 |
| | |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 0 | 0.01 | 0 | 0.01 |
| | | 합계 | 0 | 0.10 | 0 | 0.11 |
| | 증권거래세 | 0 | 0.01 | 0 | 0.02 | |
| Cp-E | 자산운용사 | | | 0 | 0.18 | |
| | 판매회사 | 0 | 0.09 | 0 | 0.09 | |
| |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 0 | 0.01 | 0 | 0.01 | |
| | 일반사무관리회사 | 0 | 0.00 | 0 | 0.00 | |
| | 보수합계 | 0 | 0.28 | 0 | 0.28 | |
| | 기타비용** | 0 | 0.51 | 0 | 0.43 | |
| | 매매, 중개 수수료 | 단순매매·중개수수료 | 0 | 0.09 | 0 | 0.10 |
| | |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 0 | 0.01 | 0 | 0.01 |
| | | 합계 | 0 | 0.10 | 0 | 0.11 |
| | 증권거래세 | 0 | 0.01 | 0 | 0.02 | |
| S-P | 자산운용사 | 0 | 0.18 | 0 | 0.18 | |
| | 판매회사 | 0 | 0.07 | 0 | 0.07 | |
| |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 0 | 0.01 | 0 | 0.01 | |
| | 일반사무관리회사 | 0 | 0.00 | 0 | 0.00 | |
| | 보수합계 | 0 | 0.26 | 0 | 0.26 | |
| | 기타비용** | 0 | 0.51 | 0 | 0.42 | |
| | 매매, 중개 수수료 | 단순매매·중개수수료 | 0 | 0.08 | 0 | 0.10 |
| | |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 0 | 0.01 | 0 | 0.01 |
| | | 합계 | 0 | 0.09 | 0 | 0.11 |
| | 증권거래세 | 0 | 0.01 | 0 | 0.02 | |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위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 총보수,비용비율

(단위:연환산, %)

| | 구분 | 해당 펀드 | | 상위펀드 비용 합산 | |
|-----------------------------------|----|----------|----------|------------|-------------|
| | | 총보수·비용비율 | 중개수수료 비율 | 합성총보수·비용비율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 |
| 트러스트다이내믹아시아 증권투자자산탁 [주식혼합-파생형] | 전기 | 0.0000 | 0.0007 | 1.7490 | 0.3921 |
| | 당기 | 0.0000 | 0.0004 | 1.8138 | 0.3984 |
| 종류(Class)별 현황 | | | | | |
| A | 전기 | 1.4524 | 0.0000 | 3.2011 | 0.3920 |
| | 당기 | 1.4524 | 0.0000 | 3.2737 | 0.3976 |
| Ae | 전기 | 1.0997 | 0.0000 | 2.9935 | 0.3666 |
| | 당기 | 1.0998 | 0.0000 | 2.9475 | 0.3914 |
| C1 | 전기 | 2.0525 | 0.0000 | 3.7678 | 0.4178 |
| | 당기 | 2.0525 | 0.0000 | 3.9890 | 0.4240 |
| C2 | 전기 | 1.8524 | 0.0000 | 3.6484 | 0.3671 |
| | 당기 | 1.8524 | 0.0000 | 3.6153 | 0.3895 |
| Ce | 전기 | 1.2506 | 0.0000 | 3.0512 | 0.4050 |
| | 당기 | 1.2510 | 0.0000 | 3.0447 | 0.4161 |
| Cp | 전기 | 1.4614 | 0.0000 | 3.2094 | 0.3918 |
| | 당기 | 1.4609 | 0.0000 | 3.2826 | 0.3972 |
| S | 전기 | 1.0416 | 0.0000 | 2.9542 | 0.3334 |
| | 당기 | 1.0434 | 0.0000 | 2.8900 | 0.3662 |
| S-P | 전기 | 1.0298 | 0.0000 | 2.8037 | 0.3243 |
| | 당기 | 1.0298 | 0.0000 | 2.8718 | 0.3280 |
| Cp-E | 전기 | 1.1095 | 0.0000 | 2.8580 | 0.3917 |
| | 당기 | 1.1095 | 0.0000 | 2.9307 | 0.3972 |

주1)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주2)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주3) 모자형의 경우 모펀드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하여 합산한 수치입니다.

6. 투자자산 매매내역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트러스트다이내믹아시아증권모투자신탁 [주식혼합-파생형]

(단위:백만원, %)

| 매수 | | 매도 | | 매매회전율(주)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해당기간 | 연환산 |
| 12,250 | 270 | 1,646 | | 23.04 | |

주)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이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 최근 3분기 매매회전율 추이

트러스트다이내믹아시아증권모투자신탁 [주식혼합-파생형]

(단위: %)

| 2017년12월28일 ~ 2018년03월27일 | 2018년03월28일 ~ 2018년06월27일 | 2018년06월28일 ~ 2018년09월27일 |
|---------------------------|---------------------------|---------------------------|
| 33.50 | 17.77 | 23.04 |

7.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펀드명칭 | 트러스트다이나믹아시아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 |
|------|-----------------------------|--------|
| 클래스 | 투자금액 | 수익률 |
| A | 2,475 백만원 | -4.93% |
| C | 2,500 백만원 | -5.79% |

※ 투자금액 및 수익률은 자산운용사의 운용전략에 따라 추가설정(환매)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금액 및 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공지사항

- * 고객님의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 고객님의 가입하신 펀드는 모자형 구조의 펀드로써 이 자산운용보고서에서의 자산구성현황, 보유종목, 보수 및 비용 등의 정보는 고객님의 가입한 트러스트다이나믹아시아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가 투자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트러스트다이나믹아시아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의 자산운용회사인 트러스트자산운용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HSBC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각종 보고서 확인 : 트러스트자산운용(주) <http://www.trustonasset.com>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참 고 : 펀드 용어 정리

| 용 어 | |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금융투자협회에서 펀드에 부여하는 고유의 코드이며, 이를 이용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 추가형 | 추가로 설정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수익증권 |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
| 보수 |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 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 판매,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집합투자업자 | 투자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판매회사에서 펀드에 가입하지만 이렇게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실제 주식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 운용하는 회사는 집합투자업자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위탁자가 되어 펀드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회사를 말합니다. |
| 신탁업자 | 신탁업자란 펀드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현행법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재산을 운용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금은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 신탁업자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
| 일반사무관리회사 | 집합투자업자의 위탁을 받아 펀드기준가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 판매회사 | 판매회사란 펀드의 판매, 환매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를 말하며,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이에 속합니다. 판매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판매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 매매수수료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펀드에서 지출되는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등의 매매수수료 총액을 펀드의 순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